

## 인문계와 산업체 고교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지식수준 비교

장정희 · 맹광호

(카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 목 차

I. 서 론	IV. 결 론
II. 연구대상 및 방법	참고문헌
III. 성적 및 고찰	

### I. 서 론

인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는 어렸을 때 부터 형성되어 가며 성장과정 중에 주위 환경이나 매스컴 등 여러 여건에 의하여 그 가치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기는 육체적으로 생식 능력과 출산능력을 갖게 되고 성적 호기심 혹은 성적 충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성적인 행위가 제한되는 반면 사회 전반적으로 성개방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T.V나 영화, 잡지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성 정보가 범람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성적 자극에 접하게 된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더구나 초경 연령의 감소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청소년의 혼전 성관계 기회의 증대, 그리고 핵가족화 현상 등은 청소년의 성적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환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이런 사춘

기 청소년들의 판단력 미숙과 성에 대한 무지, 그리고 충동적 행위 등은 결국, 10대의 임신율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성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1986년 WHO의 한 연구보고서는 최근 전세계 청소년들 사이에 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음 6가지 정리해서 발표한 일이 있다. 즉, 첫째 성행위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둘째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셋째 성병이 증가하고 있고, 넷째 원치 않는 임신과, 다섯째 인공임신중절이 증가되고 있으며, 여섯째로 원치 않는 아기의 출산이 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81년 조정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고등학생들의 27.5%가 이미 성행위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여고생들 또한 14.5%가 이를 경험해 본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여학생을 포함한 미혼여성들의 임신실태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결혼한 여

성들의 혼전임신 경험율이 26.0%나 된다는 보고나, 미혼모 시설의 10대 임신 비율이 37.2%나 되는 점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에서 미혼여성의 임신중절 비율이 약 30%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 등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성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짐작케 해준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이같은 청소년 성문제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개방된 성과 이들의 성충동을 자극하는 각종 매체들의 직접적인 악영향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이 이런 현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올바른 성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청소년 성문제가 이들의 생활환경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하나의 검증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성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가정환경과 성지식 습득 및 성에 대한 노출양상이 다소라도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문계 및 산업체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조사 비교함으로써 이들 변수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관을 위한 성교육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이 연구를 실시한 것이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문계 및 산업체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1개 도시의 인문계 및 산업체 남녀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에서 뽑은 2학년생 총 1,000명(인

문계 고교생 남녀 각 300명씩과 산업체 고교생 남녀 각 200명씩)의 학생들이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를 위한 설문은 조사대상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 8개와 성에 대한 태도 관련문항 12개, 그리고 성에 대한 지식 관련문항 10개 등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수집된 자료 가운데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은 문항은 일반적 특성 5개와 성에 대한 태도 관련문항 9개, 그리고 성지식 수준 관련문항 8개 등 22개였다.

본 조사연구에 사용된 성지식 및 태도조사 문항은 주로 정아영(1991)과 신남옥(1992) 등에 의한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것들로서 이는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유였다. 조사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양호교사가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 학생들이 반에서 직접 설문지를 작성토록 했으며,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는 전산 처리하여 백분율과  $\chi^2$  검정을 적용하였다.

## III. 성적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 학생들의 종교는 개신교가 인문계의 경우 남학생 33.3%, 여학생 44.7%이며, 산업체인 경우 남학생 26.5%, 여학생 49.0%이고 기타(무종교 포함)는 인문계 남학생 38.4%, 여학생 36.0%이고, 산업체의 경우 남학생 53.5%, 여학생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selected personal characteristics**

	General high school			Industrial high school		
	Male (n=300)	Female (n=300)	Total (n=600)	Male (n=200)	Female (n=200)	Total (n=400)
<b>Religion:</b>						
Buddhism	13.3	7.3	10.3	15.0	6.5	10.7
Catholic	15.0	12.0	13.5	5.0	4.0	4.5
Protestant	33.3	44.7	39.0	26.5	49.0	37.9
Others	38.4	36.0	37.2	53.5	40.5	47.0
	$\chi^2=11.386, p=0.010$			$\chi^2=25.252, p=0.000$		
<b>Parents:</b>						
Both alive	94.0	95.7	94.8	67.5	67.0	67.3
Single	4.7	4.0	4.4	26.0	27.0	26.5
Others	1.3	0.3	0.8	6.5	6.0	6.2
	$\chi^2=1.998, p=0.369$			$\chi^2=0.081, P=0.960$		
<b>Housing:</b>						
Own	96.7	98.3	97.5	55.0	61.5	58.5
Others	1.3	0.3	2.5	44.5	38.5	41.5
	$\chi^2=1.709, p=0.191$			$\chi^2=1.483, p=0.223$		
<b>Mother's educational level:</b>						
No/Primary	43.0	10.7	11.8	54.0	47.5	50.7
Middle school	129.7	25.0	27.3	29.0	33.0	31.0
High school	50.0	59.0	54.5	13.5	18.5	16.0
College	7.3	5.3	6.3	3.5	1.0	2.3
	$\chi^2=5.062, p=0.167$			$\chi^2=6.0392, p=0.094$		
<b>Father's occupation:</b>						
Farming	2.0	0.3	1.2	20.0	23.5	21.8
Manufacturing	8.3	4.7	6.5	11.0	4.5	7.7
Sales	24.0	26.7	25.3	11.0	8.5	9.8
Salaried	26.3	33.3	29.8	15.0	23.5	19.3
Government	13.3	10.7	12.0	2.5	3.0	2.7
Others	26.1	24.3	25.2	40.5	37.0	2.7
	$\chi^2=11.339, p=0.078$			$\chi^2=14.752, p=0.022$		

40.5%였다. 남녀 모두 개신교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인문계 및 산업체 학교별 비교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의 천주교 신자 비율이 산업체 학생들에서 보다 높았다.

부모생존여부는 양친 모두 생존하는 가정이 인문계 남학생 94.0%, 여학생 95.7%, 산업체 남학생 67.5% 여학생 67.0%, 편부모 가정이 인문계 남학생 4.7%, 여학생 4.0%, 산업체 남학생 26.0%, 여학생 27.0%의 순으로 인문계 학생보다 산업체 학생들 가운데 편부모인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별 형태에서는 자기집에서의 거주가 인문계 남학생 96.7%, 여학생 98.3%, 산업체 남학생 55.5%, 여학생 61.5%이었고, 기타에서는 인문계 남학생 3.3%, 여학생 1.7%인 반면 산업체 남학생 44.5%, 여학생 38.5%로 높게 나타나 산업체 학생들의 경우 자기집에서의 거주가 인문계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이 때문에 인문계 남학생과 산업체 남학생, 인문계 여학생과 산업체 여학생 사이에는 주거 상태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어머니 학력별 분포에서는 국졸 또는 무학력이 인문계 남학생 13.0%, 여학생 10.7%, 산업체 남학생 54.0%, 여학생 47.5%이며 고졸은 인문계 남학생 50.5%, 여학생 59.0%, 산업체 남학생 13.5%, 여학생 18.5%로 나타나 인문계 및 산업체 고교생의 남녀별 차이는 없었으나 인문계 남학생과 산업체 남학생, 인문계 여학생과 산업체 여학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아버지 직업은 농업이 인문계 남학생 2.0%, 여학생 0.3%, 산업체 남학생 20.0%, 여학생 23.5%이고, 제조산업이 인문계 남학생 24.0%, 여학생 26.7%, 산업체 남학생 11.0%, 여학생 8.5%이었으며, 회사원이 인문계 남학생 26.3%, 여학생 33.3%, 산업체 남학생 15.0%, 여학생 23.5%, 공무원이 인문계 남학생 13.3%, 여학생 10.7%, 산업체 남학생 2.5%, 여학생 3.0%로 나타나 산업체 고교생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가 많은 반면, 인문계 고교생들의 경우는 회사원이나 공

무원 비율이 높았다( $p<0.001$ ).

## 2. 성에 대한 관심 및 태도

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 필요한 성지식 및 성문제 의논 대상은 다음 표 2와 같다. 성에 대한 관심 정도는 '성지식과 성경험을 원한다'가 인문계 남학생 47.7%, 여학생 12.3%, 산업체 남학생 42.0%, 여학생 7.5%였으며, 좀더 많은 '성지식만을 얻고 싶다'는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42.0%, 여학생 60.7%이고, 산업체 남학생 40.5%, 여학생 68.5%로서, 인문계나 산업체 학생 모두 남녀별 차가 컸고, 인문계와 산업체 학생들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필요한 성지식에 대해서는 '성윤리와 책임'이 인문계 남학생 39.5%, 여학생 38.5%, 산업체 남학생 36.0%, 여학생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의 의미'가 인문계 남학생 19.5%, 여학생 22.3%, 산업체 남학생 30.0%, 여학생 9.3%이고, '임신 및 피임'이 인문계 남학생 24.2%, 여학생 27.0%, 산업체 남학생 16.8%, 여학생 7.2%이고, '생리 및 해부'가 인문계 남학생 14.8%, 여학생 10.2%, 산업체 남학생 19.5%, 여학생 17.6%로서 남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지식은 성윤리와 책임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분포는 인문계 및 산업체 학생 남녀간에는 물론, 인문계 남학생과 산업체 남학생, 인문계 여학생과 산업체 여학생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성문제 의논 대상은 친구가 인문계 남학생 59.0%, 여학생 50.7%, 산업체 남학생 59.5%, 여학생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부모로서 인문계 남학생 15.3%, 여학생 28.7%, 산업체 남학생 12.0%, 여학생 24.5%로 나타나 성문제 의논 대상은 남녀학생 모두가 친구를 선택하고 있었다. 대체로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부모와 성

**Table 2. Distribution of subjects by attitude towards sex**

	General high school			Industrial high schoo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b>Interests in Sex:</b>						
None	2.0	10.0	6.0	4.5	6.5	5.5
Knowledge only	42.0	60.7	51.3	40.5	68.5	54.5
Knowledge with experience	47.7	12.3	30.0	42.0	7.5	24.7
Don't know	8.3	17.0	12.7	13.0	17.5	15.3
	$\chi^2=98.556,$		$p=0.000$	$\chi^2=70.726,$		$p=0.000$
<b>Knowledge wanted:</b>						
Physiology/Anatomy	14.8	10.2	12.5	15.7	19.5	17.6
Responsibility	39.5	38.5	39.0	36.0	43.0	39.5
Sexuality	19.5	22.3	21.0	30.0	9.3	19.7
Pregnancy/Contraception	24.2	27.0	25.5	16.8	7.2	12.0
Others	2.0	2.0	2.0	1.5	21.0	11.2
	$\chi^2=9.658,$		$p=0.056$	$\chi^2=7.648,$		$p=0.519$
<b>Sex counselling with:</b>						
Parents	15.3	28.7	22.0	12.0	24.5	18.3
Friends	59.0	50.7	54.8	59.5	43.0	51.2
Siblings	7.0	6.3	6.7	15.0	10.0	12.5
Teachers	8.7	5.0	6.8	8.5	12.5	10.5
Others	10.0	9.3	9.7	5.0	10.0	7.5
	$\chi^2=17.141,$		$p=0.002$	$\chi^2=20.731,$		$p=0.000$

문제를 더 자주 상담하고 있었고, 산업체 여학생들의 경우 학교선생님과 성문제를 상담하는 비율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육체관계 및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는 표 3과 같다. 육체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인문계 남학생의 68.3%, 여학생의 39.7% 그리고 산업체 남학생 48.0%, 여학생의 25.5%가 이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응답했으며 즐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학생들이 좀 더 육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반면, 산업체 학생들 가운데는 이를 즐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학생 비율이 높았다.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는 '남녀 꼭 지켜야 한다' 는 응답이 인문계 남학생 43.7%, 여학생 72.0%, 산업체 남학생 45.5%, 여학생 65.5%이고, '여자는 꼭 지켜야 한다' 가 인문계 남학생 18.3%, 여학생 0.0%, 산업체 남학생 23.0%, 여학생 5.5%로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 남학생과 산업체 남학생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인문계 남녀학생과 산업체 남녀학생, 인문계 여학생과 산업체 여학생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 $p<0.001$ ).

Table 3. Distribution of subjects by their attitude towards sexual acts

	General high school			Industrial high schoo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b>On sexual intercourse:</b>						
Natural/pretty	68.3	39.7	54.8	48.0	25.5	36.7
For fun	8.0	8.0	8.0	15.0	10.0	12.5
Offspring	13.7	8.3	10.7	15.0	12.0	13.5
Dirty	1.0	4.7	2.8	3.5	14.5	9.0
Don't know	9.7	39.3	24.5	18.5	38.0	28.3
	$\chi^2=86.892, p=0.000$			$\chi^2=43.347, p=0.000$		
<b>On sexual purity:</b>						
Must be kept	43.7	72.0	57.8	45.5	65.5	55.5
No need to keep	10.7	6.7	8.7	8.0	5.0	6.5
Mental purity	19.7	19.0	19.3	14.0	14.0	14.0
Girl only	18.3	0.0	9.2	23.0	5.5	14.2
No opinion	7.6	2.3	5.0	9.5	10.0	9.8
	$\chi^2=867.158, p=0.000$			$\chi^2=30.109, p=0.000$		

이성교제 및 결혼상대 선택에 대한 태도는 표 4와 같다.

이성교제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경우가 인문계 남학생 74.0%, 여학생 63.0%, 산업체 남학생 67.0%, 여학생 6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찬성도 반대도 않는 경우로써 인문계 남학생 17.7%, 여학생 29.7%, 산업체 남학생 21.5%, 여학생 28.0%의 순이며 학생들 모두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인문계 남녀학생에게서만 유의한 차를 보였다( $p<0.01$ ).

이성교제 경험여부에 관해서는 '교제중이다'가 인문계 남학생 29.0%, 여학생 18.3%, 산업체 남학생 30.5%, 여학생 27.5%이고 '경험있다'가 인문계 남학생 26.0%, 여학생 27.7%, 산업체 남학생 37.0%, 여학생 28.5%이며,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안하겠다'가 인문계 남학생 23.3%, 여학생 26.0%, 산업체 남학생 15.5%, 여학생 25.0%이

고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하고 싶다'는 응답이 인문계 남학생 19.7%, 여학생 22.7%, 산업체 남학생 16.5%, 여학생 16.0%로서 이성교제 경험은 산업체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분포는 인문계와 산업체 학생들간에도 큰 차이가 없었고 단지 인문계 학생의 경우 현재 이성교제중인 여학생 비율이 낮고, 장차 이성교제를 원하는 학생비율이 다소 높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p<0.01$ ).

결혼상대 선택은 '본인과 부모님 의사 절충'이 인문계 남학생 43.7%, 여학생 59.7%, 산업체 남학생 44.0%, 여학생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가 인문계 남학생 55.0%, 여학생 37.0%, 산업체 남학생 52.5%, 여학생 32.5%이며, '부모님 의사에 따라'가 인문계 남학생 0.3%, 여학생 0.0%, 산업체 남학생 2.5%, 여학생 2.5%의 순으로 결혼상대 선택은 남학생은 본인 의사가 더 존중되고 여학생은 부모님과

**Table 4. Distribution of subjects by their attitude towards making friends with opposite sex and marriage**

	General high school			Industrial high schoo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king friends with opposite sex:						
Agree	74.0	63.0	68.5	57.0	60.0	63.5
Neither agree nor disagree	17.7	29.7	23.7	21.5	28.0	24.8
Disagree	3.0	4.7	3.8	5.0	4.5	4.7
No opinion	3.7	2.0	2.8	5.5	5.0	5.3
Others	1.6	0.6	1.2	1.0	2.5	1.7
	$\chi^2=15.620, p=0.004$			$\chi^2=3.8652, p=0.425$		
Experience of making friends with opposite sex:						
At present	29.0	18.3	23.7	30.7	27.5	29.0
In the past	26.0	27.7	26.8	37.0	28.5	32.7
No experience and no want	23.3	26.0	24.7	15.0	25.0	20.0
No experience but want	19.7	22.7	21.2	16.5	16.0	16.3
Others	2.0	5.3	3.6	1.0	3.0	2.0
	$\chi^2=12.982, p=0.011$			$\chi^2=9.532, p=0.049$		
Decision on Marriage:						
By own decision	55.0	37.3	46.2	52.5	32.5	42.5
With help of parents	43.7	59.7	51.6	44.0	61.5	52.7
By parents decision	0.3	3.0	2.0	1.0	3.5	2.3
Others	1.0	3.0	2.0	1.0	3.5	2.3
	$\chi^2=21.573, p=0.000$			$\chi^2=17.995, p=0.000$		
On pornography:						
Like	38.0	11.0	24.5	31.0	8.0	19.5
Shy	4.7	13.0	8.8	7.5	32.5	20.0
Indifference	50.0	38.7	44.4	49.0	32.0	40.5
Dislike	7.0	34.7	20.8	10.0	24.5	17.3
Others	0.3	2.6	1.5	2.5	3.0	2.7
	$\chi^2=121.327, p=0.000$			$\chi^2=77.793, p=0.000$		

본인의 의사를 절충하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 남녀학생과 산업체 남녀학생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p < 0.001$ ).

성에 관한 낙서나 그림을 볼 때의 감정에 대해 '재미있게 본다'가 인문계 남학생 38.0%, 여학생 11.0%, 산업체 남학생 31.0%, 여학생 8.0%이고,

'당황하게 된다'가 인문계 남학생 4.7%, 여학생 13.0%, 산업체 남학생 7.5%, 여학생 32.5%이며, '그저 그렇다'가 인문계 남학생 50.0%, 여학생 38.7%, 산업체 남학생 49.0%, 여학생 32.0%이고, '혐오감을 갖는다'가 인문계 남학생 7.0%, 여학생 34.7%, 산업체 남학생 10.0%, 여학생 24.5%로서

여학생에게서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 남녀학생과 산업체 남녀학생 사이, 그리고 인문계와 산업체의 여학생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p<0.01$ ).

몽정 및 자위행위에 대한 태도는 표 5와 같다.

최초의 몽정과 월경 때의 기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인문계 남학생 51.7%, 여학생 33.0%, 산업체 남학생 40.0%, 여학생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당황했다'가 인문계 남학생 26.3%, 여학생 46.3%, 산업체 남학생 22.5%, 여학생 37.0%로서 인문계와 산업체 학생 모두에서 여학생의 경우 불안심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체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좀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자위행위 경험여부는 '경험 없다'가 인문계 남학생 16.7%, 여학생 92.7%, 산업체 남학생 28.0%, 여학생 86.5%이고, '경험 있다'가 인문계 남학생

83.2%, 여학생 7.3%, 산업체 남학생 72.0%, 여학생 13.5%로 인문계나 산업체 학생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자위행위 경험자의 경험 후 기분은 '죄의식을 느낀다'가 인문계 남학생 4.4%, 여학생 15.0%, 산업체 남학생 6.3%, 여학생 29.6%이었고, '기분이 좋았다'가 인문계 남학생 33.6%, 여학생 30.0%, 산업체 남학생 41.6%, 여학생 11.1%이, '허탈감에 빠진다'가 인문계 남학생 28.8%, 여학생 10.0%, 산업체 남학생 33.3%, 여학생 33.3%이고, '모르겠다'가 인문계 남학생 30.0%, 여학생 45.0%, 산업체 남학생 14.6%, 여학생 22.2%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이 일을 불쾌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특히 산업체 여학생들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Table 5. Distribution of subjects by their attitude towards wet dream and masturbation**

	General high school			Industrial high schoo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b>On first wet dream or menstruation:</b>						
Felt happy	9.7	4.3	7.0	13.5	5.5	9.5
Embarrassed	26.3	46.3	36.3	22.5	37.0	29.7
Nervouse	3.0	13.0	8.0	7.0	26.0	16.5
Natural	51.7	33.0	42.3	40.0	20.0	30.0
Felt matured	9.3	3.4	6.4	17.0	11.5	14.3
	$\chi^2=63.645, p=0.000$			$\chi^2=51.232, p=0.000$		
<b>Experience of masturbation:</b>						
No	16.7	92.7	54.7	28.0	86.5	57.3
Yes	83.3	7.3	45.3	72.0	13.5	42.7
	$\chi^2=349.605, p=0.000$			$\chi^2=139.830, p=0.000$		
<b>Feeling after masturbation:</b>						
Guilty	4.4	15.0	9.7	6.3	29.6	18.0
Good	33.6	30.0	31.8	41.6	11.1	26.3
Prostration	28.8	10.0	19.4	33.3	33.3	33.3
Don't know	30.0	45.0	37.5	14.6	22.2	18.4
Others	3.2	0.0	1.6	4.2	3.7	4.0
	$\chi^2=358.545, p=0.000$			$\chi^2=149.997, p=0.000$		



### 3. 성에 대한 지식수준

임신관련 생식생리에 관한 학생들의 성지식 수준은 다음 표 6과 같다.

즉, 임신이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라는 올바른 성지식을 가진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99.0%, 여학생 97.3%, 산업체 남학생 96.5%, 여학생 98.5%로 임신에 관한 지식정도는 남녀학생 모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현상은 인문계나 산업체학생 모두에서 남녀간에 거의 차가 없었으며 단지 인문계 남학생과 산업체 남학생에서만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p<0.01$ ).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곳이 자궁의 나팔관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56.3%, 여학생 53.0%, 산업체 남학생 54.0%, 여학생 33.5%로 비교적 이에 관한 지식수준이 낮았다. 인문계와 산업체별로 보면 인문계 학생들에서 이에 관한 인문계와 산업체 학생 모두에서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이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남녀간에 유의한 차를 보였다( $p<0.001$ ).

태아의 성별이 수정 직후에 정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52.7%, 여학생 52.3%, 산업체 남학생 43.5%, 여학생 43.5%이었고, 이것을 모르겠다고 한 학생들은 인문계 남학생 18.0%, 여학생 16.7%, 산업체 남학생 34.0%, 여학생 32.6%로서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지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학생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p<0.05$ ), 인문계 남학생과 산업체 남학생, 인문계 여학생과 산업체 여학생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다( $p<0.001$ ).

월경의 시작이 임신 가능성을 의미한다라는 성지식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이 인문계 남학생 90.7%, 여학생 94.0%, 산업체 남학생 81.5%, 여학생 89.5%로서 남녀학생 모두 지식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 남학생들이 산업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지식률을 보였다( $p<0.001$ ).

임신하면 월경이 그친다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인문계 남학생 72.3%, 여학생 95.3%, 산업체 남학생 53.5%, 여학생 85%이었고, '모르겠다'가 인문계 남학생 18.7%, 여학생 3.7%, 산업체 남학생 36.5%, 여학생 9.0%로서 여학생의 지식정도가 높음을 보여 주었으며, 인문계 남녀학생과 산업체 남녀학생, 인문계 남학생과 산업체 남학생, 인문계 여학생과 산업체 여학생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p<0.001$ ).

이상 5가지 성지식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산업체 학생들에서 모두 높았다.

임신 및 성병 관련 기타 성지식은 표 7과 같다.

콘돔사용이 임신을 100% 방지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학생 비율이 인문계 남학생 28.3%, 여학생 24.3%, 산업체 남학생 56.5%, 여학생 39.5%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0.3%, 여학생 54.0%, 산업체 남학생 26.0%, 여학생 25.5%이었으며,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11.4%, 여학생 21.7%, 산업체 남학생 17.5%, 여학생 35.0%로 나타나 남녀학생에서 모두 유의한 차가 있었다( $p<0.01$ ).

치녀막 파열이 다시 회복된다는 잘못된 성지식을 가진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8.3%, 여학생 5.7%, 산업체 남학생 11.0%, 여학생 6.0%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81.4%, 여학생 77.6%, 산업체 남학생 61.5%, 여학생 63.0%이었으며,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10.3%, 여학생 16.7%, 산업체 남학생

**Table 6. Distribution of subjects by level of knowledge on reproductive physiology**

	General high school			Industrial high schoo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b>Fertilization occurs</b>						
<b>when ovum meets sperm:</b>						
Yes	99.0	97.3	98.2	96.5	98.5	97.5
No	1.0	1.0	1.0	0.0	0.5	0.3
Don't know	0.0	1.7	0.8	3.5	1.0	2.2
	$\chi^2=5.042, p=0.080$			$\chi^2=3.819, p=0.148$		
<b>Ovum meets sperm at salpinx:</b>						
Yes	56.3	53.0	54.7	54.0	33.5	43.8
No	23.7	34.7	29.7	10.5	34.5	22.5
Don't know	20.0	11.3	15.6	35.5	32.0	33.7
	$\chi^2=14.777, p=0.001$			$\chi^2=35.569, p=0.000$		
<b>Sex of baby is decided</b>						
<b>after fertilization:</b>						
Yes	52.7	52.3	52.5	43.5	43.5	43.5
No	29.3	31.0	30.2	22.5	24.0	23.2
Don't know	18.0	16.7	17.3	34.0	32.6	33.3
	$\chi^2=0.295, p=0.863$			$\chi^2=0.164, p=0.921$		
<b>Woman is fertile when</b>						
<b>menstruation begins:</b>						
Yes	90.7	94.0	92.3	81.5	89.5	85.5
No	6.0	4.0	5.0	5.5	5.5	5.5
Don't know	3.3	2.0	2.7	13.0	5.0	9.0
	$\chi^2=2.381, p=0.304$			$\chi^2=7.860, p=0.020$		
<b>Menstruation stops with</b>						
<b>fertilization:</b>						
Yes	72.3	95.3	83.8	53.5	85.5	69.3
No	9.0	1.0	5.0	10.0	6.0	8.0
Don't know	18.7	3.7	11.2	36.5	9.0	22.7
	$\chi^2=58.889, p=0.000$			$\chi^2=49.570, p=0.000$		

Table 7. Distribution of subjects by level of knowledge on pregnancy and venereal disease

	General high school			Industrial high schoo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Condom perfectly prevents pregnancy:						
Yes	28.3	24.3	26.3	56.5	39.5	48.0
No	60.3	54.0	57.2	26.0	25.5	25.7
Don't know	11.4	21.7	16.5	17.5	35.0	26.3
	$\chi^2=11.671, p=0.003$			$\chi^2=17.697, p=0.000$		
VD comes from contacts with VD patients:						
Yes	76.0	66.3	71.2	80.0	61.5	70.8
No	10.3	9.0	9.7	5.5	5.0	5.2
Don't know	13.7	24.7	19.1	14.5	33.5	24.0
	$\chi^2=11.715, p=0.003$			$\chi^2=19.927, p=0.000$		
Hymen can be replaced automatically:						
Yes	8.3	5.7	7.0	11.0	6.0	8.5
No	81.4	77.6	79.5	61.5	63.0	62.3
Don't know	10.3	16.7	13.5	27.5	31.0	29.2
	$\chi^2=6.234, p=0.044$			$\chi^2=0.396, p=0.183$		
AIDS has nothing to do with youths:						
Yes	3.3	1.7	2.5	6.0	7.0	6.5
No	93.3	92.0	92.7	84.0	84.0	84.0
Don't know	3.4	6.3	4.8	10.0	9.0	9.5
	$\chi^2=4.489, p=0.106$			$\chi^2=0.259, p=0.878$		

27.5%, 여학생 31.0%로서 산업체 학생들의 지식 정도가 낮은 것을 보였으며, 이런 응답비율은 인문계와 인문계와 산업체의 남학생, 여학생 각각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p<0.001$ ). 또한 '에이즈가 청소년과 무관하다'는 성지식에 대해 '아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인문계 남학생 93.3%, 여학생 92.0%, 산업체 남학생 84.0%, 여학생 84.0%로서 학생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지식정도는 높은 것을 보였으며, 인문계가 산업체 학생들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p<0.001$ )

이상 임신과 성별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산업체 학생들에서 남녀 모두 더 높았다.

성이란 자연적인 생명욕구를 배타적으로 충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다. 언제나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자세를 가지고 인격적인 사랑의 만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일이

며, 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성적행동에 대한 인격적인 관념형성과 인간화가 필요하다.

Mims와 Lubowr(1976)는 성에 대한 태도가 성에 관한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교과과정에서 성을 다루어야 하고 집중적인 성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경험이 된다고 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우선 연구가설로 제기한 바와 같이 인문계와 산업체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산업체 학생들의 경우 인문계 학생들에서 보다 편부 비율이 높았고, 주택 또한 자기집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나 아버지의 직업구분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생활여건의 차이와 성별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들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나 지식수준을 비교해 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다.

우선 성에 대한 조사대상 학생들의 관심정도를 보면, 성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성행동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대답한 경우가 인문계 남학생 47.7%, 산업체 남학생 42.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성지식만을 얻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인문고와 산업체고교에서 각각 60.7%와 68.5%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보면 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녀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성행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인문계 학생들이 산업체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신남옥(1992)의 연구에서는 성행동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학생이 남학생 62.2%, 여학생 11.1%, 성에 무관심하다가 여학생 5.2%로 본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여고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해경(1986)의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경험을 희망하는 학생이 7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필요한 성 지식에 대해서는 남녀학생 모두 생식생리에서부터 임신, 피임, 그리고 성윤리와 책임 등에 까지 비

교적 광범위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전반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문제의 의는 대상은 남녀학생 모두 친구라고 답한 경우가 인문계 54.8%, 산업체가 51.2%로 높게 나타나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보다 편안한 상대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1986년 김귀희의 연구에서는 성문제 의는 대상이 친구라고 대답한 학생이 무려 95.3%나 되었다.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에 관한 태도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가 68.3%, 산업체 48.0%, 여학생의 경우 인문계가 39.7%, 산업체 25.5%로 남학생들이 성행위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성행위가 단지 즐기기를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산업체 남학생에게서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이 더욱 절실함을 알 수가 있다.

정아영(1991)의 연구에서도 성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62%로 본 연구와 비슷했고, 변희재(1976)의 연구에서는 이 비율이 남학생 80.4%, 여학생 50.2%로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성에 대한 최근의 이런 견해는 1963년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조사한 연구에서 남자 41.7%, 여자 30.7%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시간변화에 따른 성지식과 태도의 변천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는 '남녀가 꼭 지켜야 한다'는 답이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 남학생 43.7%, 산업체 45.5%, 여학생의 경우 72.0%, 산업체 65.5%로서 이는 신남옥(1992)의 연구에서 남학생 48%, 여학생 61%와 김귀희(1986)의 연구에서 남학생 37.3%와 여학생 76.3%로 유사했으며, 오옥자(1976)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95%가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과와 대조를 보인다. '여자는 꼭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답이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 18.3%, 산업체 23.0%를 나타냈는데, 이는 변희재(1976)의 연구에서 남학생 64.8%와 대조를 보인다. 이는 혼전순결에 대한 관념이 잠재적으로 뿌리박혀 온 문화 속에서 여성의 순결에 대한 남성들의 남존여비사상의 잔재라 여겨진다. '지킬 필요가 없다', '정신적 순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견해도 있어 이는 성개방의 풍조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문제 및 결혼상대 선택에 대한 태도에서 '이성교제를 찬성한다'가 남학생은 인문계 74.0%, 산업체 67%, 여학생의 경우 63%, 산업체 60.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신남옥(1992)의 연구에서 남학생 84.7%, 여학생 88.9%로 나타나 남녀 학생 모두 본 연구결과보다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여학생 비율이 높은 점을 큰 차이로 들 수가 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남학생은 인문계 55.0%, 산업체 67.5%, 여학생은 인문계 46.0%, 산업체 56.0%로 산업체 학생들이 이성교제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체 학생들의 경우,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의 병행에서 오는 갈등과 혼란에서 겪게 되는 문제로 학업보다는 이성 쪽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남옥(1992)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45.9%, 여학생의 43.7%가 이성교제를 경험한 것과, 김종희(1991)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36.3%, 그리고 이인규(1983)의 연구에서 남학생 41.3%와 여학생의 27.3%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에 비하면 본 연구대상 학생들의 이성교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결혼상대의 선택은 본인 의사에 따른다는 남학생이 인문계 55.0%, 산업체 52.0%였으며, 본인과 부모님의 의사를 절충하겠다는 학생은 여학생이 인문계 59.7%, 산업체 61.5%로 남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었으며, 여학생은 자신의 의사보다 부모님의 의사를 절충하는 경우로

보아서 여성이 더 수동적이며 의존적이라 생각된다.

성에 관한 낙서나 그림을 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 50.0%, 산업체 49.0%로 대부분이 '그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당황하게 된다', '혐오감을 갖는다'가 인문계 47.7%, 산업체 57.0%로 대담해 이들에 대한 올바른 성지식과 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바르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용구(1990)의 연구에서 '그저 그렇다'가 남학생 40.8%, 여학생 19.3%, '당황하게 된다'가 남학생 23.6%, 여학생 56.3%로 나타난 것과 유사했다.

몽정 및 자위행위에 대한 태도는 최초의 몽정과 월경 때의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남학생이 인문계 51.7%, 산업체 40.0%, '당황했다'는 여학생이 인문계 46.3%, 산업체 37.0%, '불안했다'는 여학생이 인문계 13.0%, 산업체 26.0%로 나타나, 여학생에서 생리반응이 민감했으며 부정적인 심리반응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신남옥(1992)의 연구에서 '기분이 좋았다'가 17.6%, '허탈감에 빠진다', '죄의식을 느낀다'가 42.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결과가 자위행위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조정숙(1981)의 연구에서 '허탈감에 빠진다', '죄의식을 느낀다'가 46%인 것과는 유사했다.

이상 9가지 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조사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성행동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 인문계와 산업체 별로 보면 산업체 고교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오히려 성행동에 대해 소극적이고 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가정환경이 어려운 산업체 학생들의 경우 삶에 대한 태도가 그만큼 더 진지하고, 따라서 성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이나 태도가 인문계 학생들보다 덜 개방적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한편 생식생리와 임신 등에 관한 지식수준을 묻는 문항들의 경우, 우선 임신관

런 생식생리에 관한 성지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임신이 되는 과정에 관한 지식의 경우 월경에 관한 것을 제외한 다른 생식생리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지식들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외라고 생각이 된다. 이들 지식에 있어서도 산업체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지식 수준이 낮은 것은 역시 성교육 기회가 일반 고교생들에서 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교과과정상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신 및 성병 관련 기타 성지식 정도에 관해서는 남녀별로 볼 때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들 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인문계와 산업체 고교별로 보면 역시 산업체 고교생들의 지식수준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뒤지는 상태로 이것 또한 교과과정중에서의 전반적 성교육 기회가 인문계 고교생들보다 적은 때문으로 생각이 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하는 데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로 본 연구의 대상이 1개 지역내 각각 1개씩의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실제 해당 인문계 및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 내지 성교육에의 폭로정도를 제량화해서 비교하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장차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연구를 위해 이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VI. 결 론

산업체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비교 조사함으로써 이들이 성에 노출되는 기회나 성교육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보고자, 1개 지방도시 산업체 및 인문계 남녀 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생들 간에는

부모생존여부, 주거형태, 그리고 보호자의 직업 등 인구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인문계 학생들에서보다 편부모 비율이 높았고 자기집 소유 비율이 낮았으며 아버지가 농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2. 인문계 및 산업체 학생 모두에서 성지식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이, 성행동에 대한 관심은 남학생이 더 높았으며, 필요한 성지식으로는 성윤리와 책임에 관한 것을 가장 많이 원했다. 임신이나 피임에 관한 지식을 원하는 학생 비율은 산업체 학생들보다 인문계 학생들에서 더 높았다. 학생들의 성문제 상담 대상자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모였으며, 이 경향은 남녀, 인문·산업체 학생 모두에서 비슷했다.

3. 육체관계와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육체관계를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반면, 산업체 학생들은 이런 견해 비율이 크게 낮았고, 혼전순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비율도 산업체 남녀학생들에서 더 유의하게 높았다.

4.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인문계 및 산업체 고교생의 2/3 정도가 찬성하고 있었으며, 현재 교제중이거나 교제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도 각각 절반 이상이 되었다. 결혼상대자를 본인 의사대로 선택하겠다는 학생 비율은 인문계와 산업체 고교생 모두에서 가장 높았으나 부모님 의사에 맡기겠다는 학생 비율은 인문계 학생들보다 산업체 고교생 가운데 더 높았다.

5. 몽정이나 자위행위 경험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생들에서보다는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당황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위행위 후 죄의식을 느꼈거나 허탈감을 경험한 학생 비율을 보면 산업체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훨씬 많았다.

6. 임신과 관련된 생식생리 지식이나 성병 및 피임 등에 관한 지식수준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높은 지식률을 보였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그리고 산업체 남학생들 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이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간단한 남녀 생식생리 지식이나 성별, 피임 등에 관한 지식률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산업체 학생들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성행동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단순한 성지식이 반드시 건전한 성행동을 유발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으며, 따라서 남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더 올바른 성지식의 교육과 건전한 성관을 심어주는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1. 김귀희(1986).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성교육 요구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 김종희(1991). 중등학교 여학생의 성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3. 변희재(1976).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의대 간호학과.
4. 신남옥(1992). 고교생의 성 지식 정도와 태도 및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5. 오옥자(1976).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6. 이용구(1990). 중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7. 이은정(1989).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 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8. 이인규(1983). 일부 도시지역 남녀 고교생의 성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원주전문대학 간호과.
9. 전혜경(1986). 여교생의 성교육 실태 조사연구, 교육심리학 연구, 서울여대 심리학회 창간호, 166-167.
10. 정아영(1991). 여교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관심도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11. 조정숙(1981).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교육대학원.
12. 중앙교육연구소(1963). 순결교육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 배영사.
13.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7).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중고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14.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8). 한국 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I).
15. Miss F.H and Lubowr B.L(1976). Human sexuality course evaluation, Nurs. Res. 25, 187.
16. WHO(1986). Reproductive Health in Adolescence, Position Paper, MCH Division of Family Health, Geneva, Switzer-land.

< Abstract >

## **Comparison of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Sex between General and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Jung Hee Jang · Kwang Ho Me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Occupational Health,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was planned to investigate indirectly the effects of study environments of high school students such as family characteristics, availability of sex education, and possibility of exposure to unhealthy sexual environments.

For this purpose, the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sex of general and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were compared because these two groups of students were believed to be different in those study variables.

For this study, 600 students (300 male and 300 female students) from a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nd 400 (200 male and 200 female) from an industrial high school in one industrial city in Korea were surveye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ected family condition variables between general and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Proportions of students with single parents, those who live in houses other than their own, and those father's occupations were farming and manufacturing were higher in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than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2. Female students wanted to have more knowledge on sex whereas male students were interested in things related to sexual acts in both general and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The largest proportion of students wanted to discuss their sex problems with their friends not with their parents.
3. More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 thought that the sexual intercourse is natural and pretty than those in industrial high school, whereas more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insisted on the sexual purity before marriage tha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4. About 65% of students surveyed agreed to making friends with opposite sex and, in fact, more than half either had experiences or were having friends of opposite sex. More students in industrial high school wanted to choose their marital partners based on advices of their parents than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
5. More female students than male and more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tha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were embarrassed with first wet dream or menstruation and felt guilty about the masturbation.
6. Level of knowledge on reproductive physiology, sex transmitted disease and contraception was higher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than in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These study results suggest that simple knowledge on sex of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does not seem to affect positively the students attitude towards sex and the unfavorable living conditions of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seem to



influence the students to become more sincere and healthy in their attitude towards sex and life.

Therefore, more thoughtful consideration in contents and methods should be given when the sex education is provided to the high school students.